정계개편-탄핵 심판-개헌 따라 대선 정국 요동칠 듯

긴급진단
빨라진 대선시계

㊥ 다양한 변수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와 일정에 따라 대선 시기가 정해지는 등 각종 변수에 따른 유동성도 크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의 변수를 조명해본다.

◇**정계개편**=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은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 진영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비박 진영이 당권을 장악하지 못할 경우, 분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박 진영이 '혁신 보수'를 기치로 신당을 창당한다면 친박과 친문(친 문재인)을 제외한 '비패권동맹'이 형성될 수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중도적 가치를 공유하며 제3지대에서 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친박-중도-친문 후보와의 3자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을 떠나 중도 후보를 내세운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울타리를 벗어나 중도 진영 집권의 길을 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호남 정치권과 영남의 혁신 보수 세력이 나서고 손학규-반기문-안철수 등이 국민 경선을 치른다면 국민적 흥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 분당-혁신보수 연대
반기문 총장 정치활동 주목
개헌 고리로 권력구조 개편
'제3지대' 연대시 판 흔들

특히,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비박 신당에 참여, 중도의 기치를 든다면 반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연정 카드도 거론하고 있다. 정체성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비박 신당과 국민의당, 나아가 민주당과의 대연정을 고리로 정권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제3지대론에 대한 호남 민심의 판단도 주요 변수다. 호남 민심이 정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야권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동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개헌**=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개헌도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다. 개헌론은 국정 농단 사태로 폐단이 여실히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현실화 여부를 떠나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가 형성되는 등 대선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선주자 가운데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개헌론에 가장 적극적이다. 손 전 대표는 개헌을 고리로 한 여야 정치권의 연대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손 대표는 개헌론을 매개로 안철수 전 대표와의 제3지대 접점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여기에 국민의당도 개헌론에 긍정적이다. 그동안 개헌론에 거리를 뒀던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다. 논의는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개헌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시간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치적 활로가 필요한 새누리당 비박 진영도 혁신 보수를 내세워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민주당에서도 개헌은 뜨거운 감자다. 당장, '문재인 대세론'에 제동을 걸려는 비문(비문재인) 진영이 개헌을 매개로 대선 구도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킹 메이커' 역할을 할 것을 보이는 김종인 전 대표도 꾸준히 개헌론을 내세우며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손 전 대표와 김 전 대표는 지난주 만찬을 갖고 개헌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에 대해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선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개헌 논의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대선 구도를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개헌의 대선 이전 현실화는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헌재 출근하는 수명재판관들 헌법재판소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제3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준비절차 기간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등을 미리 청취해 쟁점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이정미·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왼쪽부터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탄핵심판 변론절차·기일, 재판관 퇴임 변수

박대통령 변론 출두 주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쟁점 정리 등을 위한 준비절차에 곧 착수할 계획인 가운데 박 대통령의 태도가 심판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준비절차 언제 끝날까**=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변론 준비절차를 시작하더라도 이달 중 변론 절차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준비절차는 원활한 변론 진행과 집중적·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미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한 뒤 효율적인 변론을 하기 위한 절차다.

특히 쟁점을 정리하려면 당사자들이 각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 제출 등을 협의해야 하지만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며 대립 중인 대통령과 국회가 순탄하게 협의할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올해 안에 준비절차를 끝내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변론 절차 '첩첩산중'**=변론 준비절차가 마무리돼도 변론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변론에 당사자들이 참석하도록 규정한다.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불참하면 변론기일을 다시 정한다. 다만, 다시 열린 변론에서는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심리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는 다시 변론기일을 잡아야 한다.

변론에서는 당사자 및 증인 신문, 참고인 신문, 각종 증거조사 등이 이뤄진다. 당사자 중 한쪽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인 신문을 거쳐 증거능력 여부를 따져야 해 심판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관 퇴임과 후속 임명 변수**=내년 1월과 3월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인선 때문에 심판이 늦어질 수도 있다. 두 명의 재판관이 공석이 될 경우 심판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새로 임명될 재판관의 사건 파악과 쟁점 정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금기시 된 판도라 상자, 그래도 '희망'이 있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168) 판도라

인류 최초의 여성으로 불리는 '판도라'에게 열어서는 안 되는 상자가 있었다. 금지할수록 소망하고, 금기일수록 깨지는 것은 동서고금이 똑같은 것 같다. 아름답지만 참을성 없는 여인이었던 판도라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열어보아서는 안 되는 상자를 열었고, 그 덕분에 인류의 모든 재앙과 불행, 질병, 고통이 인간 세상에 쏟아져 나왔다. 이제 상자에 남은 것은 희망 한 줄기.

지금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사건도, 개봉되자마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판도라'도 결국 누군가 상자의 뚜껑을 열었기에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현실을 압도하는 영화, 때로 영화보다 더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한 적 많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어서 잠시 안도해 본다.

어쩌면 판도라는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서인가. 서양미술에서 금기의 상자를 열었던 판도라를 여러 작가가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1849~1917)의 작품 '판도라의 상자'(1896년경)는 상자를 열고서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모든 재앙에 놀란 판도라가 두 눈을 감고 뚜껑을 덮으려는 순간을 그린 그림이다. 이 순간이 우리가 사는 지구가 고민거리로 가득한 세상이 됨과 동시에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장면이기도 할 것이다.

워터하우스작 '판도라의 상자'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는 로마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한 화가였던 까닭에 그리스 신화와 전설, 문학을 주제로 한 그림을 주로 그렸다. 특히 문학 속에 담긴 여성들을 그림 속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면서 전형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예술적으로 창조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